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실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9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목의 요청 기도 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인수를 목표로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 ○ 훈련생들의 해외방문을 축복하소서(3.1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중동 난민들에게 복음 전파 및 목양을 강화하시며 현지 통역자들을 얻으소서 -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 - 성경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주변 민원이 해결되게 하소서 - 가정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 견고한 기초 단위들이 되게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3.31(목) 오전10시 구월동집회장소

2. 인천 교회 책임 봉사자들 지역 쉬임 방문 안내

인천 교회는 책임 봉사자들의 지역간 쉬임을 위해 매월 1회 주말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주일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주 2016.4.3일(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3. 목회자 세미나 (에베소서)

- ① 일 시 : 5.31(화)까지 오전 10시 ~오후3시
- ② 장 소 : 인천 교회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전구, 성도들
-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재비포함, 대학생은 회비 없음)

4. 인천 교회 온전케 하는 훈련 집회

- ① 일 시 : 4.23(토) 집회Ⅰ 오후 4사-오후 5시30분
* 저녁 식사 : 5시30분~7시
집회Ⅱ 오후7사-8시30분
4.24(주일) 집회Ⅲ 오후4사-오후 5시30분
- ② 회 비 : 5,000원
- ③ 신 청 : 4.10(주일)까지 지역별로 취합하여 집사실로 신청

5. 대만 화련 교회내방(24명)

- ① 일 시 : 4.3(주일)~4.4(월)
- ② 접대 및 쉬임 장소 : 구월동집회장소
- ③ 쉬임 집회 : 4.3(주일) 7시 30분

《기타 사항》

1. 위트니스 리 전집 1973 ~ 1974년도(전 2권) 주문 예약

- * 정가: 78,000원 / 세트 특별가 - 54,000원
- * 예약 방법 : 예약금 - 20,000원 / 잔금 - 34,000원
- * 예약 마감 : 3월 28일(월) 각 지역 도서 담당자에게 신청

2. 이번주 아침부흥 진도 : 2015년 겨울훈련 메시지 8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3.13.(월) ~ 2016.03.20.(주일))

지역	1지역 (83명)				2지역 (108명)				3지역 (100명)				4지역 (116명)				5지역 (98명)		6지역 (49명)		7지역 (16명)		계																
	의화	관	영	정	관	구	민	수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인수목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이상	19	15	15	10	9	11	14	13	19	11	13	19	8	24	19	16	23	18	16	9	11	9	15	12	10	8	13	13	23	31	24	20	13	11	11	14	7	9	570
기도	10	6	5	4	4	4	9	4	5	6	5	8	8	11	6	6	3	2	9	3	7	4	3	2	7	15	12	8	8	5	8	6	1	5	247				
그물	8	7	8	7	11	3	8	4	8	4	4	13	4	16	10	14	13	12	9	7	3	5	7	5	6	4	7	3	7	11	15	12	8	6	8	4	5	7	293
아침부흥	12	8	7	4	4	4															2				10	23	16	13	12	7		7	4	5			151		
어린이	11				16				12				18				15		8		6		86																
아범노파									13				3				7				5		28																
중요동부	8				4				10				12				15		10				59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3. 27. 16-13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속전

엡 6:11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군인의 인구 조사

속전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몸값이 아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과 달리,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지불되는 몸값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에서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 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 모두가 구속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30장의 속전에서는 많은 이들이 제외된다. 먼저 모든 여자들이 제외되었다. 게다가 이십 세 미만의 모든 남자들이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속전은 단지 이십 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즉 그것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 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운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조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또 '인구 조사하다'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인구 조사는 일반적인 조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 데 필요한 인구 조사이다.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나, 민수기 2장 32절은 진(camp) 혹은 군대를 말한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육십만 삼천 오백 오십 명이었으며" 여기서의 군대는 군(army)을 말한다. 30장에서 계수된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군, 군대, 진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첫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둘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군대가 되어야 했다. 출애굽기 30장의 몸값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인구 조사는 일반적이거나 평범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군대의 인구 조사, 즉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남자들을 징집하는 것과 관련된 인구 조사이다.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

성막은 그분이 택하신 백성 안에서 체현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성막 안에서 이 하나님이 체현되시는 목적은 무

엇인가? 그것은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이것에 있어서의 원칙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것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총만인 교회를 본다. 하나님의 총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총만은 하나님의 성막,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안에 삼일 하나님이 체현되신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따르면, 결국에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은 혈과 육이 아닌 공중의 주관자들과 권세들에 대하여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계시는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의 예표와 일치한다. 먼저 하나님의 체현인 성막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유익과 움직임을 위하여 중재하는 분향단에 도착할 때까지 성막의 모든 방면들을 체현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군대, 즉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의 편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분향단이 언급된 직후 인구 조사와 속전이 언급되는 것도 이런 때문이다. 사실상 30장 11-16절까지는 속전보다도 인구 조사를 강조한다. 12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수효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백성의 수효는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분향단에 도착할 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하여 중재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이 중재의 기도의 응답은 군대의 편성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분향단과 속전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분향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땅 위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로 편성될 수 있는 사람들을 취하는 인구 조사가 있어야 한다.

기도와 군대의 편성

우리는 분향단에서의 기도, 즉 중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즉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요구하는 그분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며, 그분의 군대 편성을 위해 인구 조사가 필요함을 보았다. 이로써 우리는 분향단과 속전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왜 분향단이 기술된 직후에 속전이 언급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분향단에서

의 기도는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를 편성하는 데 필요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산출한다.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군대가 편성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라. 군대 없이 성막이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겠는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 없이 성막은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다. 민수기에 따르면 이십 세의 남자와 그 이상의 남자들의 수효는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중에, 민수기는 군대들인 열두 지파를 말한다. 이것은 각 지파가 군대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레위 지파만이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그 지파는 성막을 위한 군대였기 때문이다. 지파들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들로 편성되었다.

분향 단에 대한 기록이 나온 직후의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는 인구 조사와 속전에 관한 말을 본다. 싸우는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가 필요했다. 분향 단에서의 중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싸움으로써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이 그 답이다. 그러나 그분의 군대는 어디에 있는가? 그분의 무리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형성되어 져야 한다. 게다가 이십 세가 찬 남자들만이 이 군대의 군인이 될 자격이 있다. 이것은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많은 백성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성숙이 꼭 필요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숙에 따른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인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당신의 영적인 나이는 단지 몇 주, 혹은 몇 년에 불과할 수 있다. 출애굽기 30장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의 총수는 적어도 이백만이었다. 그러나 삼분의 일도 안 되는, 정확히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자격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 중 삼분의 이 이상, 즉 모든 여자들과 이십 세 미만의 남자들은 군대의 인구 조사에 들지 못하였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가 되려면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나이가 이십 세가 될 때까지 자라야 한다. 분향 단에서 드리는 중재는 군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성장되고 성숙되기 위한 것이다. 분향 단에서 더 중재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야 할 절박함이 더 커진다. 성숙해야 할 필요가 절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야 한다. 우리 중의 더 많은 이가 자라서 성숙하고 군대로 형성될 자격을 가져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 그런 군대가 형성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서 움직이실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자들로 형성된 군대가 없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길이 없다. 오,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분향 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재의 기도는 이것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남자들만이 하나님의 군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자매들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체험에서 남자는 강한 사람을 의미한다. 영적으로는 오늘날 어떤 자매들이 남자들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형제들은 영적으로 여자들일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우리가 형제인가 자매인가에 달려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강한가 약한가에 달려있다. 만일 당신이 영 안에서 강하다면, 당신은 남자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영 안에서 약하다면, 당신은 여자이다. 우리 중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여자들이다. 그러므로 성숙함이 필요하다.

모든 집회에서 반 세겔을 드림

합당한 집회, 살아 있고, 풍성하며, 균형 있는 집회는 각자가 반 세겔을 드리는 집회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어떤 부요한 사람들은 수백만 세겔을 내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내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나는 집회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을 염려한다. 만일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낸다면 그들은 집회를 죽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성도들은 반 세겔보다 적게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은 교회 집회에 올 때마다 반 세겔을 내야 한다. 이것은 큰 요구가 아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정확히 반 세겔을 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반 세겔은 충분한 지불이며 온전한 단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10게라이며 한 베가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성도들이 반 세겔을 드리는 집회를 보고 싶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자라며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 세겔은 우리 자신의 저울로 무게를 달지 말고 지성소 안에 있는 저울로 무게를 달아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13절에 있는 세겔은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따라 무게를 단 세겔, 지성소의 세겔이라 불리워진다. 적어도 우리는 인구 조사를 위해, 군사 모집을 위해 영적인 인두세를 낼 만큼 충분한 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집회에서 반 세겔을 낸다면, 우리의 집회는 얼마나 강하고, 살아 있고, 풍성하며, 높이 올려지고, 뛰어나며, 놀랍게 될 것인가! 나는 다시 한 번 영적인 생명이 아직 어린 사람들은 반 세겔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아이들 또는 십대들이다. 우리 가운데 그런 어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러나 이십 대가 넘는 모든 사람들은 반 세겔을 내야 한다. 이것은 군대의 편성을 위한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스타일 M153-155에서 발췌)

활력 그룹의 부담 및 활력(1)

요 15:5하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활력 그룹의 부담

활력 그룹은 회복을 또 하나의 시대 안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룹이다.

나는 "무엇이 활력 그룹인가?"라고 묻고 싶다. 당신은 활력 그룹이 살아 있고 불타며 열매를 맺는 그룹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이 없는 교리적인 답변일 수 있다. 사실상 활력 그룹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룹이다. 오늘날 회복 안의 우리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정상적이다. 활력 그룹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서의 나의 부담은 세대를 바꾸는 것이다. 1984년에 내가 대만에 갔을 때 나는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현재의 잠자고 있는 회복의 상태에서는 계속하여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데의 죽어있음(계 3:1-2)과,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함(계 3:14-16)과, 퇴보하는 믿는 이들의 열매 없음(요 15:2상)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회복을 또 다른 시대 안으로 이끌기를 원한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주어진 활력그룹에 관한 메시지들에서 발췌한 중점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말한다. 그때 제자들은 핍박하는 유대 종교인들의 위협 아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한 무리의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외에 아무것도 주의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했다. 그들은 그분을 좇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종일토록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영을 소멸하지 않았다.(살전 5:17-19)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일 듯 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 영으로 충만 되었다. 그들에게 그 영의 충만이 있었다. 물이 절반만 채워진 컵은 물의 충만이 없다. 만일 물이 컵에 부어져서 컵을 충만하게 한다면, 물이 컵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는 그 사랑스런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끓어오르고(bubbling) 있었다. 그들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내가 여기서 고통하고 있는 것은 지난 이 년 동안의 나의 메시지들에서 발췌한 중점들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부분,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라. 당신은 포도나무의 가지이다. 나무의 가지는 바로 나무의 일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부분들인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나무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생명의 연합 안에서 하나 되고, 범사에 그 영을 따라 살고 활동하고 처신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의 충만을 얻을 것이고 말함에 의해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말함에 의해 주님으로 끓어올라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지 않다면, 우리는 바람 빠진 타이어일 것이다. 우리가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는 이유는 영을 따라 생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몰두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연합과 유기적인 연합 안에 돌모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고 살고 처신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활력 그룹이다.

일어나서 활력 화 되는 길을 취함

아마 당신의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만 틀에 박힌 듯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틀에 박힌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자들이다. 그들은 이기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활력 화 되는 길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지방 교회 안에서 활력 그룹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활력 화 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은 당신의 지방에서 몇몇 이기는 자들을 얻으실 것이며, 주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실 수 있는 길이 있게 될 것이다.

활력 그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생명선임

그룹 집회는 교회 생활의 80퍼센트를 구성해야 한다.

그룹 집회가 교회 생활의 80퍼센트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고 또한 복음을 전파함, 양육함, 소중히 품음, 먹임, 온전케 함이 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했다. 그런데 그룹은 어디 있고, 그룹 집회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들었고 받았으며 이것에 대해 심지어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룹 집회의 분명한 건축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들 가운데 그룹 집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교회 생활의 80퍼센트를 점유하는 정도로 세워진, 우리가 의도한 그런 그룹 집회가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확신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짐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첫 번째 단계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따르면 오순절 날에 믿는 이들은 집집마다 모였다. 헬라이어에서 "집집마다"로 번역된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마다 거기에 집회가 있어야 함을 가리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집회가 있어야 한다. 내가 여러 번 이것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큰 집회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우리가 큰 집회에서만 모인다면 합당한 교회 생활은 방해받을 것이다. 풀 더미가 흩어지면 자라고 퍼질 수 있지만 쌓아 놓게 되면 죽어 버린다. 우리는 큰 집회라는 외관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그분의 확신을 원하시며, 그분의 확신은 가정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260-263p 발췌)